

인디언 멸망사가 던지는 질문,
미국은 누구인가



검은고라니구술, J.G. 니이하트 기록 |
김정환 옮김 | 두레 | 422쪽 |
값 12,800원

《검은고라니는 말한다》 vs 《나를 운디드니에 물어주오》

‘운디드니’는 미국인디언들에게 치욕의 이름이고, 미국인들에게는 인디언 점령에 마침표를 찍은 ‘전승戰勝’의 다른 이름이다. 미국은 1890년 운디드니 학살을 마지막으로 인디언의 저항을 마무리했고, 인디언은 그들의 삶과 자연을 무덤 속으로 안고 들어가야 하는 처참함에 빠졌다. 인디언 멸망사는 곧 미국의 서부 개척사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검은고라니는 말한다》(BLACK ELK SPEAKS)와 《나를 운디드니에 물어주오》는 인디언 멸망의 본말을 증명하는 ‘정본’ 이랄 수 있는 책이다. 허다한 미국의 서부 개척사가 미국의 입장에서 쓴 개척사의 기록이라면 두 책은 인디언의 증언에 토대한 ‘패자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두 책은 또 공교롭게도 70년, 30년의 간격을 두고 개정판을 내면서 많은 독자를 맞고 있는데, 이것은 서부 개척사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인디언의 슬픈 운명이 그만큼 몸서리치게 다가서기 때문이다.

《검은고라니는 말한다》는 인디언의 운명 못지않게 극적인 책이다. 1932년 첫 발간되었을 때 이 책은 평론가들 사이에서만 ‘좋은 책’이었다. 다시 살아난 계기는 출간된 지 30년도 지나 책의 진가를 알아본 독일 학자들 덕분이었다. 심리학자 칼 융을 비롯, 독일 학자들의 상찬이 잇따르자 이 소식은 미국까지 흘러들어갔고, 이미 회귀본이 된 《검은고라니는 말한다》는 갑자기 웃돈 주고 구해야 하는 촌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1961년 페이퍼백으로 다시 출간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20세기의 가장 빼어난 10권의 영적인 책 Spiritual Book’으로 21세기를 보내고 있다.

검은고라니(Black Elk, 1863~1950)는 위대한 추장이나 전사(戰士)가 아니라 오그랄라 수우족의 예언자(그는 아홉 살 때 12일 동안 앓아누운 채 부족을 구원해야 한다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이자 주술사였다. 오그랄라 수우 족은 인디언 중에서도 맨몸으로 가장 치열하게 저항했던 부족. 그러므로 검은고라니의 구술에 의해 J. G. 니이하트 시인이 쓴 인디언의 삶은 땅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인디언들의 피울음에 다름아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에 대한 인디언의 저항은 삶의 존재방식에서 비롯된다. 인디언은 ‘네 발 달린 것들과 두 발 달린 것들이 한데 어울려 혈육처럼 사는’ 삶을 행복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와이쿠(인디언들이 백인을 가리키는 말)는 서로를 보살피주지 않으며, 재미삼아 들소를 죽인다. 문명충돌 이전에, 소유의 개념과 생명에 대한 관념 차이가 필연적으로 인디언의 운명에 사슬을 감았던 셈이다.

《검은고라니는 말한다》는 미국 문명에 대한 경고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인디언이 자신들의 땅을 지킬 수 없었던 인디언들끼리의 내홍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와이쿠에 매수당한 추장들이 늘어감에 따라 인디언들은 안팎의 적과 싸워야 했던 것. 적은 수의 인디언

들이 많은 수의 와이쿠를 상대로 어떻게 맞붙을 수 있었는지, 원시적인 전술 소개 역시 이 책의 가치를 높여준다. 말을 타고 원을 그리며 거리를 좁혀 가다가 두 겹의 원을 만들고, 한 원이 다른 원 속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도는 것으로써 그들은 기마병의 총알을 피했다.

하지만 힘은 결국 어느 한쪽을 무릎 꿇리기 마련이다. 검은고라니는 운디드니 학살을 회상하면서 '당신이 보다시피 이렇게 아무 한 일 없이 비참한 늙은이가 되어버렸다'는 자탄과 함께 '인디언의 중심은 사라졌고, 성스러운 나무도 죽고 말았다'고 비탄에 잠긴다.

그러므로 《검은고라니는 말한다》는 검은고라니 한 개인의 구술로 정리된 자서전을 뛰어넘어 인디언의 역사서, 인디언 문화와 백인 문화의 속살까지 만져볼 수 있는 철학서라 할만하다. 전방위 예술가로 평가되는 김정환 씨의 빛나는 번역과 만나는 기쁨도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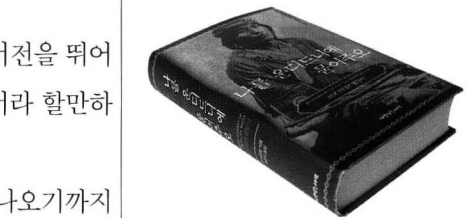
《나를 운디드니에 물어주오》는 1971년 첫 출간되었다가 2000년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인디언 역사책으로 꼽힌다. 《나를 운디드니에 물어주오》의 메시지는 '인디언 레저베이션'을 강하게 부정하는 것에 있다. 인디언 보호구역은 백인들이 불인 뜻말이었을 뿐 보호구역의 인디언들은 늪지대나 불모지에 격리돼 그곳에서 병들어 죽거나 도망치다 사살당했다. 즉, 보호지역은 유폐지역이었다는 것이다. 이 책 역시 모험과 용기로 치장된 미국인의 프런티어 정신이 인디언 입장에서는 땅과 목숨을 빼앗기는 탐욕의 정신이었음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나를 운디드니에 물어주오》는 인디언과 백인들의 협상 내용과 그 줄다리기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다. 불리한 협상안 앞에 좌절하고 갈등하고 고뇌하지만 인디언들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은 '지금은 백인의 법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 법은 하나만 살아남는 것, 인디언 법은 죽었다'는 선고이다. 이에 견주어 백인들이 먼저 조약을 어긴 내용, 목숨을 건 전사들의 투쟁사는 거꾸로 평화주의자, 자연보호주의자로서의 인디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19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마지막 챕터 역시 '운디드니'이다. 운디드니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1492년) 이후 인디언의 정상적인 삶을 완전히 마감하는 신Scene이기 때문이다. 운디드니 대학살에서만 인디언 3백 명이 죽었고, 백인은 25명이 죽었다. 그 처절함을 명징하게 설명하는 수사修辭는 '땅 위에 희망은 없었다'이다.

전북대 최준석 교수의 군더더기 없으면서도 드라이한 번역이 인디언의 삶과 맞물려 스펀디한 독서를 돕는다.

두 책은 미국인의 손으로 씌어졌지만 인디언의 증언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한 기록문학으로 평가받는데, 세계적인 슈퍼 베스트셀러가 우리 독자들에게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



디 브라운 지음 | 최준석 옮김 |
나무심는사람 | 704쪽 |
값 18,000원

임동현 기자

1년 만에
다시 만나는
언론인의 아름다움,
언론인의 칼끝 정신



송건호 지음 | 한길사 | 전 20권 |
각권 20,000원

《송건호 전집》

언론인 고 송건호는 한국의 민주화 성취에 있어 거역할 수 없는 주주株主이다. 그의 활동은 언론 민주화 중심이었으나 그 초심은 '사회정의를 위한 투쟁이 되어야 한다'는 데 있었고, 그는 행동과 양심 두 축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평생을 보낸 보기 드문 운동가였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한 고문 후유증으로 파킨슨 증후군에 시달리다 작고한 지 1년여가 지나 그의 이름 석 자만 단출하게 내세운 방대한 책이 나왔다. 20권으로 구성된 《송건호 전집》이다.

《송건호 전집》의 특징은 활화산처럼 살다 간 언론인의 정신을 헤아릴 수 있다는 점이다. 그의 치열함을 지탱해 준 정신의 지평이 무엇이었던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데, 해직 기자 시절 골방에서 소주병 끌어안고 분개하는 대신 한국 현대사 연구에 몰입했던 역사 연구가의 자세도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특히, 정황을 앞세워 현실과 악수하며 살아가는 지식인들 입장에서는 《송건호 전집》이 따끔한 채찍이 될 수도 있다.

전20권은 《민족통일을 위하여》 1,2를 비롯 《한국현대사》 1,2, 《한국 현대사의 빛과 그늘》 등 그의 글 성격에 따라 구성됐다. 이 중 전집의 18권인 《고난의 길 진리의 길》과 19권인 《파도야 어찌란 말이냐》는 인간 송건호의 목소리가 많이 담긴 책으로 분류된다. '생선회를 좋아하다 보니 부산도 좋아졌다'는 고백이나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지만 두어 잔 들어가면 피곤도 울적한 마음도 괴로움도 후련히 발산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는 술회는 깡깡함을 전부였을 것 같은 작고 언론인의 잔정을 느끼게 해준다.

이 전집의 분류는 두 권으로 구성된 《한국현대사》에 있다. 그는 서슬 퍼렇던 1979년 '운이 나쁘면 어떤 변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입장 때문에 학자들의 일제하 민족사 연구가 부진하다고 정면으로 비판했고, 학자들이 못한 연구를 결집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장본인이다. '운동권'으로만 알고 있던 지인들이나 그를 감시했던 사람들 역시 한 지식인이 안팎으로 쌓은 내공에 혀를 내둘렀음은 물론이다. 여기에도 그는, 독립운동을 했던 지식인들이 1930년대 후반 들어 부일적附日的 자세를 취한 사례를 엄정하게 검증해 학계의 분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 글의 제목이 '씻지 못할 오욕의 기록들' 이거니와 이 글에는 자신이 몸담았던 <동아일보>를 포함 <조선일보>의 친일 언론으로의 전향 태도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이런 저런 태도 변화를 거쳐 급기야는 일본군을 '아군' 또는 '황군'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실 고 송건호는 일반인들에게는 언론인으로만 각인된 측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는 아쉬운데, 전집의 2권 《민족통일을 위하여 2》에 실린 <민족자주성의 재인식>은 그의 해안이 얼마나 깊은지를 응변한다. 그는 이 글에서 한국의 대학을 미국 유학과 박사들이 지배하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공부한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미국학풍이 종적繼的·역사적 학문이라기보다 횡적橫的·사회학적 학문이기 때문' 이라고 지적한다. 미국 사회과학은 역사과학 측면보다 사회학적 특성이 강하다는 지적이야말로 막연하게 민족자주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자주성의 준거로 작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전집을 갖게 된 것은 언론인 송건호 때문이기도 하지만, 좀더 진전된 민주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일 터인데, 정작 그의 막내아들 송계용(청암언론문화재단 이사) 씨는 전집간행의 기쁨도 기쁨이지만 '솔직히 아버지의 정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다. 가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아버지는 쫓겨다니거나 시위를 하거나, 늘 밖에만 계셨다'며 당신이 작고한 뒤에 전집을 펴내는 가족의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 **추천**

임동헌 기자

《현대 저널리즘의 창시자, 혹은 신문왕 폴리처》

폴리처는 1847년생이다. 지금과 150년 이상의 거리를 두고 있지만 그는 이미 1800년대에 오늘의 신문이 갈 길을 제시했고, 가지 말아야 할 길도 제시했다는 점에서 불가사의한 '신문인'으로 꼽힌다. 네거티브한 점에서 접근하자면, 그가 좀더 현명한 신문인의 길을 택했을 경우 오늘의 신문들이 조금 더 '현명한 신문', '신문다운 신문'이 되었을 것이란 얘기다.

폴리처에 관해 얘기할 때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폴리처는 기자이면서 신문사 경영자였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기자는 특종 추구형인 동시에 뉴스 발굴 추구형이지만 경영자는 자본주의 영역 안에서 생존의 틀을 세워야 하는 마켓형 존재인 때문이다. 이분법적으로 보면 기자는 정신과 불가분의 관계이고, 경영자는 밥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현대 저널리즘의 창시자, 혹은 신문왕 폴리처》는 이런 점을 종합한 '입체적인 폴리처 텍스트'이다.

남북전쟁에 투입될 신병으로서 미국에 첫 발을 디뎠던 그는 군인으로는 훌륭하지 못했다. 다만 기자로서는, 가장 기사다운 기자였다. 독자로서 투고했다가 전격 채용된 그는 이른바 '특채 기자'였다. 갖은 고생 끝에 특채 기자가 된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누비 특종머신 같은 삶을 살았다. 같은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도 폴리처가 취재원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기가 질릴 정도였다. 기자로서 그는 때로 신중하고 때로 용감했다. 여섯 살 난 아이를 성추행한 두 청년의 기사가 나왔을 때 <뉴욕 트리뷴>지는 기사를 1면에 올렸다. 폴리처는 기사를 쓰레기통에 던지고 사설에서 언급했다. 기사가 대중에게 전달되는 통로를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했는가를 알게 해주는 단서이다.

그는 여러 면에서 기사다운 가치관을 가진 기자였다. <뉴욕 월드>를 지배할 때 그는, 파업 노동자와 정부가 싸우자 정부를 공격했고, 소년이 죽어나갈 수도 있는 법정 감방의 냉혹한 처우를 비판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권력과 비권력층에 대해 얘기할 때 그는 분명 가난하고 힘 없는 자의 편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밤 늦도록 편집국에 남아 기자들을 향해 고함쳤고 욕설을 퍼부었다. 여기서 그에게 '현대 저널리즘의 창시자, 혹은 신문왕'이란 수식어가 붙은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아쉽게도 그는 오늘날 신문들이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보도태도와 경영행태와 자기모순을 그대로 보여줬다. 활자뿐이었던 신문에 그는 만평과 사진을 편입시켜 눈요깃거리를 장치했다. 스포츠 기사를 크게 다루고, 일요판이라는 이름 아래 스캔들과 가십을 실어 무료한 성인들의 눈길을 유혹했다. <뉴욕 타임스>가 10만 부 팔릴 때 그의 <뉴욕 월드>가 100만 명의 독자를 확보했다는 사실은 폴리처가 얼마나 대중적인 신문을 만들었던가를 증명해준다.

폴리처가 신문왕이라는 타이틀을 질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의사 결정력에서도 찾을 수 있다.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 기념으로 자유의 여신상을 보내왔을 때였다. 비용을 핑계로 모든 언론이 설치 반대를 주장했지만 그의 <뉴욕 월드>는 범국민 모금 운동까지 펼쳐가며 자유의 여신상 설치를 주장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은 마침내 이겼다.

폴리처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반면 교사이다. 뛰어난 신문 기자가 뛰어난 신문사 경영자로 홀로서기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 책은 그걸 잘 설명해 주는데, 매년 발표되는 폴리처상 수상자 이름과 함께 폴리처를 떠올리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폴리처의 삶 속에 미국이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이다.

《폴리처》의 번역자 김승욱 씨는 기자 출신답게 언론인 전기에 걸맞는 어휘 선택과 문체로 폴리처읽기를 돕는다. **출판**

신문 기자도
신문사 사장도
나를 따르라



데니스 브라이언 지음 | 김승욱 옮김 |
작가정신 | 956쪽 | 값 30,000원

임동헌 기자